

(주)LG생명과학

유방염 백신 「마스터백」 출시 기념 세미나 개최



LG생명과학(대표 김인철)은 지난 5월 24일(수) 서울 강남에 소재한 엠버서더 노보텔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방염 백신인 “마스타 백(Masta Vac)” 출시 기념 세미나를 가졌다.

LG생명과학 김인철 사장은 인사말에서 “「마스타 백」은 미국 아이다호 대학의 원천기술과 LG생명과학의 바이오테크놀러지의 접목으로 8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탄생된 제품으로 효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친환경적인 유방염 백신”이라며 “국내 낙농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갈 것”이라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유방염의 국내 일인자라 말할 수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문진산 박사가 ‘젖소 유방염 발생 양상별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



로 유방염의 발생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이어 LG생명과학의 이홍균 생물공정연구팀장으로부터 「마스타백」의 항원 개발, 김윤식 제제연구팀장으로부터 「마스타백」의 제제 개발, 장병선 동물의학연구소장으로부터 「마스타백」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김명석 마케팅PM으로부터 「마스타백」의 목장사용 성공사례’ 라는 주제의 강의가 이어졌다.

LG생명과학이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마스타백’은 젖소 유방염의 예방 및 증상완화 효능이 뛰어나고 안정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이 분비하는 포도상구균 독소단백질(SEC ; Staphylococcal Enterotoxin C)의 병원성을 약독화하여 면역활성 반응만을 유도하도록 만든 SEC-SER이라는 항원이 주성분이다. 특히 이 제품은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유방염 감염 예방 효과 뿐만아니라, 체세포감소 등 임상증상이 완화되었다. 또한 비유, 건유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다.

LG생명과학의 김명석 PM은 “「마스타백」은 유방염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우군 내 타 개체로의 전염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포성 면역을 통한 체세포수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하며 “「마스타백」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1차 접종 후 2주 후에 2차 접종을, 2차 접종 후 4주후에 3차 접종을 실시하고 6개월마다 보강 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등 목장주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G생명과학은 임상실험으로 국내 100여 목장에서 3,200여 두의 젖소에 투여한 결과, 유방염의 예방 효과가 뛰어나고 동시에 유방염의 증상

을 완화시켜 치료기간 단축 및 항생제 사용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LG생명과학은 이번에 개발한 젯소 유방염백신을 국내를 비롯한 미국, 브라질 등 8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향후 1,6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계 유방염백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세계 메이저급 회사와의 제휴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

전남본부 낙농주부아카데미 수료식 거행

대한제당(주)무지개사료는 전남 고흥, 보성지역의 여성낙농인을 대상으로 한 낙농주부아카데미를 지난해 4월부터 1년간의 수료과정을 마치고 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점차 세분화되어가는 낙농사양관리 및 주부낙농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낙농관련정보와 기술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주부낙농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교육과정의 진행이 다른 때보다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낙농주부아카데미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1년 동안 10번의 교육시간을 가졌으며, 송아지 관리부터 착유우 관리까지 각 단계별 급여프로그램 및 선진 사양 기술을 전파하고 미래낙농의 비전을 제시하여 향후 낙농의 사업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교육중점을 두었다. 특히, 무지개사료와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영국 BOCM PAULS사의 낙농 전문가인 David Webster씨의 개별 농장방문을 통해 농장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필요개선부분을 협의하여 농장경영에 도움을 제공했다.



이번 낙농주부아카데미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404지역 송재웅 부장은 “처음 시작할때는 8명으로 시작하였는데, 수료식은 15명이 참석할 정도로 주부낙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고마움을 전하며, 향후 보다 농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며 감회를 나타내었다. 무지개사료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전국적인 낙농주부아카데미를 통해 농장의 실질적인 농장운영노하우 및 최신기술을 제공하여 미래낙농의 비전을 제시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주)유카스

국제 기술 세미나 개최

유카스는 지난 5월 8일(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농림진흥청 축산연구소 기술이전 및 바이패스 콜린과 바이패스 비타민C 국제기술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제1주제로 (주)누보비엔티 연구소의 김현수 박사가 ‘반추가축용 첨가제 코팅의 신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제2주제는 서울대학교 반추영양학실 김현진 박사가 ‘반추가



축 사료에 있어 반추위 보호의 필요성과 적용범위' 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제3주제는 축산연구소 낙농과장인 김현섭 박사가 '바이패스 콜린의 개발배경과 산업적 효과' 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마지막으로 제4주제는 일본 동경대학교의 히데오 야노 박사가 '반추가축에 바이패스 비타민C 급여가 고급육 생산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유카스의 이윤교 사장은 "이번 세미나는 반추가축용 사료 첨가제 개발의 차별화된 최신 기술을 홍보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산업적 효과를 높이는 취지로 개최되었다."고 말했다.

원인터내셔널

베일과 랩핑을 동시에, 맥헤일사 복합베일러 선포

총채보리 및 총채벼 생산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수확하여야 영양성분과 건물 생산량이 높아 적기 생산을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특성에 따라 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총채보리의 작업은 디스크모아로 절단을 하

고 베일러로 베일성형을 한 후 랩핑기로 랩포장을 하여 자체 혐기 유산발효가 일어나도록 하여 운반 보관 및 급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원인터내셔널(대표 원유중)은 아일랜드 맥헤일사(대표 마틴 맥헤일(Martin Mchale))에서 최근 개발한 베일과 랩핑을 동시에 하는 복합 베일러를 수입하여 영광, 칠곡, 진천에 순회 연시를 하면서 낙농가 총채보리 수확포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강 평야에서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윤기)에서 총채보리 시연회에서 맥헤일사의 복합 베일러(모델명 퓨전)로 연시회를 갖고 작업광경을 시연하였다. 원유중 대표는 "퓨전은 한국 특성에 맞도록 제작되어 습지가 많은 포장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며 총채벼 생산의 경우 무 눈에서도 베일을 성형 후 지면에 떨어지지 않고 직접 랩핑을 함으로서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작업시간 단축과 압축 밀도가 높아 유산 발효에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맥헤일 퓨전은 베일과 레핑 두작업을 결합하여 한사람이 하나의 기계로 끝낼 수 있도록 통합한 기계로 운전비용과 인건비에서 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베일의 압력을 높여 단단한 베일을 성형기 위해 50m/m롤러 축을 부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의 습지에서 빠지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점은 초광폭타이어를 장착하여 눈 두렁을 거침없이 넘을 수 있다며 시간당 50~60개의 베일을 성형시켜 짧은 수확기간에서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

정정합니다

지난 호에 나갔던 대성미생물(주)의 신제품 기사 중 '세파-D59'는 비유기 유방염 연고가 아니라 건유기 유방염 연고로 바로 잡습니다.